

보고

2016년
세계기본소득운동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발의 안

아래의 3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고 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액수와 재원조달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



결과: 찬성 23.1%, 반대 76.9%로 부결.

평가와 효과

- 23% 지지는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
- 찬성운동 과정에서 1인당 기본소득 “300만원”이 강조된 점은 생각해볼 문제로 남음.
- 전 세계적인 긍정적 파급효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정부, 정당, 언론들의 관심 증폭으로 시민사회 인지도와 지지도가 커짐.

7월 7~9일 제16차 BIEN 대회



2016년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BIEN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대회 개최(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 7월 7~9일, 3일간 국내외 발표자 100여 명, 참가자 연인원 1천 명이 함께한 대회
- 7월 9일 BEIN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기본소득 정의 명료화

“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성격을 갖는다.

1. **정기성**: 기본소득은 규칙적으로 (예를 들면 매달) 지급되며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다.
2. **현금 지급**: 기본소득은 적합한 교환수단으로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어디에 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식품이나 서비스 같은) 현물이나 특정 용도로만 쓰이는 바우처가 아니다.
3. **개별성**: 기본소득은 개인에 기초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구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4. **보편성**: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5. **무조건성**: 기본소득은 노동 또는 노동 의향의 입증 요구 없이 지급된다.”

- BIEN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유형에 대한 결의안 채택

“2016년 7월 9일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참가자 다수는 금액과 빈도가 안정적인, 그리고 다른 사회서비스들과 어우러져서 물질적 빈곤을 제거하고 모든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략이 되는 충분히 높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우리는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하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사회서비스들과 수급권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한다.”

성남시 청년배당 실시

청년배당 모델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

방식: 분기마다(매분기 시작월 20일) 25만 원 지급, 연간 100만 원

시행된 정책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방식: 매분기 시작월 20일에 12만 5천 원 지급, 12월 26일 유보금 지급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정부, 의회, 정당 내 기본소득 지지 증가

-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의회 기본소득 토론, 프랑스의회의 기본소득 권고 보고서 제출
-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회에서 기본소득 요구안 발의(포데모스)
- 영국 제3정당이자 스코틀랜드 최대정당인 스코틀랜드 민족당의 기본소득 지지안 채택
- 영국노동당 제러미 코빈, 기본소득 정책 내세워 당대표로 당선
- 야니스 바로파키스(그리스 전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시(미국 전 노동장관) 등 유력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주창자 대열 합류

노동계, 실리콘밸리의 지지 확산

- 앤디 스텐(미국 서비스노조 SEIU 전 위원장), 윌리엄 스프리그스, 캐시 페인골드(미국 AFL-CIO 지도자) 등도 주창자 대열에 합류
- 영국 왕립예술협회(Royal Society of Arts), Unite, GMB, 노동조합회의(TUC),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양대 노총(COSATU, FEDUSA) 등 지지 확대
-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 주제의 다보스포럼 이후 주류경제계의 기본소득 관심 증가

- 일론 머스크(테슬라모터스), 샘 앨트먼(Y콤비네이터) 등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의 기본소득 지지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 부상

- Y콤비네이터의 소규모 기본소득 실험(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 지역) 준비
- 비영리단체 기브다이렉틀리(GiveDirectly)의 케냐, 우간다 기본소득 실험 준비

2017년 실험을 준비하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노동시장 참여'에 주목하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대상: 2016년 11월에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거나 실업수당을 받은 25~58세 주민들 가운데 2천 명 (실행주체인 Kela에서 무작위로 뽑고, 뽑힌 사람에게 거부권 없음)

기본소득 금액: 매달 530유로 (핀란드 실업수당 최고액은 약 702유로), 실험 도중에 일자리를 구해도 계속 지급

기존 복지와의 관계: ‘복지 혜택수준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에 영향을 줌

실험에 대한 핀란드 기본소득운동 측 반응

- 기본소득핀란드네트워크, 녹색당, 좌파연합, 해적당 등의 기존 기본소득운동 활동가들의 우려 또는 비판 제기

- 핵심 우려/비판

1) 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학생들, 자영업자들 등등의 여러 잠재적 수령인 집단들을 배제

2) 현행 조세제도를 건드리지 않음

➡ 왜곡된 기본소득 실험결과 예상, ‘인권, 자유, 평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들

엄격한 제재조건이 달린 기본소득 실험

기간: 2017년부터 2년간 (2016년 9월, 중앙정부가 지자체 실험 허용)

대상: 네덜란드 지자체 (위트레흐트, 흐로닝언, 틸부르흐, 바헤닝언 등 최대 24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급자들 중 자원자

방법

- 현행 사회복지와 5가지의 대안적 사회복지의 비교 실험.
- 실험 참가자는 도중에 그만둘 수 없고, 구체적 사회복지 조건은 무작위로 배정되어 참가자의 선택권은 없음.

제재조건과 애초 설계자들 반응

- 실험 중간에 ‘자발적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함.

- 파트타임 노동, 창업활동, 돌봄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외.

➡ “억압이 아닌 신뢰에 기초”하고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선택, 더 많은 구매력”을 주는 실험과는 동떨어진 실험이라는 비판.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기본소득 실험

'음의 소득세' 모델로 설계한 휴 시걸의 안

기간: 2017년 3월 이후 3년간 (2016년 2월에 주정부의 실험 예산 약속)

경과: 2016년 11월에 실험의 설계/운영 종합보고서 발표(휴 시걸 전 상원의원), 휴 시걸의 안으로 2017년 1월 주민의견수렴 진행 중.

특징

- ‘음의 소득세 모델’. 즉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저소득 기준의 75%) 소득을 ‘부족분 보충’ 방식으로 보장(장애인에게는 500달러 추가 지급).
- ‘18~65세 도심지 주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 진행하는 4가지 보장소득 비교 실험’ 또는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 전체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실험’

상대적 장점

- 다양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역할과 효과를 분석
- 분석내용: 정부 행정비용, 건강생활 효과, 진로와 가족형태 등 ‘삶의 선택들’, 노동행위/노동시간 및 구직활동, 여타 복지프로그램과의 상호작용 등등

논쟁 가능성

- 참가자 개개인의 소득을 조사한다는 점, 기준 미달인 사람들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논쟁 가능.